농가 부담 던 농기계 임대사업 갈수록 인기

장성·무안군 등 370여대 대여…이용객 급증 추세

굴삭기·못자리 형성기·논둑 제초기 등 기종 확대

전남 각 시군이 농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가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농사용 굴삭기, 못자리형성기 등 신규 기종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임대 농기계 수도 점차 늘려가고 있다.

5일 장성군에 따르면 농사용 굴삭기, 못자리형성기, 퇴비살포기, 논둑 제초기 등의 신기종 농기계를 구입한다. 농기계 수요 파악을 위해 군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경종·원예·특용작물·축산 등 177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군은 오는 8일 신규 구입기종 확정 심의회를 열어 농기계 구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다음달부터 임대에 나선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50종 22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농가 2199곳이 4108대를 대여해 사용했다. 이는 매달 평균 200여 대를 임대한 것으로, 지난 2011년과 비교해 27% 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료 수입도 전년보다 31% 포인트 늘어 7800여만원을 기록했으며, 임대 농가는 작업 면적 증가와 노동력 절감 등으로 농업생산비가 30%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과 적기 영농 추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군은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자가 수리능력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센터 내 농기계 관련 전문가를 신규 배치하기도 했다. 또 임대료가 농기계 구입가격의 0.25%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것도 장점이다.

무안군도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별도로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일로읍과 해제면 등 2곳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2곳의 분소에는 운영요원 2명과 퇴비살포기 등 21종 150여 대의 농기계를 배치된다. 무안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난해 이용실적이 792건에 달해 전년 대비 40%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농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

무안군 관계자는 "일로농협과 무안농협과 협력해 농가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며 "양파와 마늘 기계화 사업과 연계·추진하는 등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무안=김민준기자 jun@

광양 '알스트로메리아' 日 수출

저온성 화훼…매주 2차례 경매시장 출품

광양시가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한 저온성 화훼 '알스트로메리아〈사진〉'가 일본 수출길에 올랐다. 광양에서 생산되는 알스트로메리아는 경남 김해의 한 기업을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매주 2차례 일본 도쿄·오사카·후쿠오카 등의 화훼경매시장에 선을 보이고 있다.

시 관련 공무원과 화훼농가 대표 등은 수출에 앞서 알스트로메리아의 원활한 수출업무 추진, 일본 농가의 재배 환경 및 품질에 대한 자료 수집, 일본 현지 물류시스템 및 판매방식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4일간 일본 현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배려'와 '새로운 만남'의 꽃말을 지닌 알스트로메리아는 남미가 원산지인 저온성 화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꽃이지만, 국제 화훼시장에서는 꽃이 화려하고 다양해 크게 각광받고 있다. 특히 광양 알스크로메리아는 품질이 우수해 일본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알스트로메리아는 겨울철 고온 재배가 필요치 않은 작물로 고유가 시대에 유류비가 절감되고, 병해충에도 강해 생산비 절감 효과가 높다. 또 한 번 식재하면 5년 이상 연중수확이 가능하고 비교적 재배 관리가 용이해 매력적인 품목으로 꼽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달 하순 본격적으로 매주 1만5000여본을 일본으로 수출해 2억여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알스트로메리아 재배를 2012년부터 농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현재는 5개 농가 1.2ha에서 재배되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목포 어린이 바다과학관 개관 목포 어린이 바다 과학관이 5일 오후 문을 열었다. 117억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져 바다상상홀, 깊은 바다 등이 배치됐다. 이날 개관식에는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박지원 국회의원, 배용태 전남행정부지사, 배종범 시의회의장,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문패만 내건 나주시 위원회

91개중 36개는 지난해 회의 한번도 안해

4천여만원 수당 지급… 통폐합 의견 많아

나주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91개나 되지만 이 가운데 36개위원회가 지난해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복되거나 명칭만 유지되는 위원회가 많아 구조조정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에는 나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시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13개 위원회, 인사위원회를 비롯,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가 38개, 국장과 실과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40개 등 모두 91개의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392건의 안건으로 189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해 일반인 개최수당으로 4137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각 위원회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6개, 1회 개최가 26개나 됐다. 특히 나주시 생활보장 소위원회의 경우 안건이 53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겨우 1차례 회의를 하는데만 그쳐 '생색내기 회의'를 했다는 목소리도 높다.

91개 위원회 가운데 상위법령에 따른 위원회가 24개, 그 외 67개는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위법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는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례로 규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유사하거나 사실상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 구조조정을 위해 매년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도 5개 정도 통폐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순천시 28일 서울시와 상생 교류협력 협약

순천시는 5일 "오는 28일 서울시와 상생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 동안의 교류협력보다 한 단계가 높은 포괄적 우호협약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순천시는 서울시민에게 내실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서울시민의 순천 방문을 유도,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충훈 시장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와 실효성 있는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전남 종합 단신

'강진사랑상품권' 판매 1억원 돌파…지역경제 활기

강진군이 '강진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발행된 강진사랑상품권은 지난 4일까지 판매액 1억원을 넘어섰으며, 지금까지 판매된 상품권의 대부분이 중소 유통업체, 일반상점, 약국·병원·꽃집·자동차수리점·주유소·요식업소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군은 이날 강진버스여객터미널에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상권 보호를 위해 강진원 강진군수를 비롯한 지역주민, 기관사회단체 임직원 300여 명이 강진사랑상품권애용 캠페인 행사도 가졌다. 또 읍시가지에서 시장일원에 전단지를 배포하고 강진사랑상품권 사용 시장보기 등을 실시했다. 군은 매달 첫째주 토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해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전북

설 연휴 박물관·공원 무료 개방

군산·남원시·순창군 등 민속놀이 행사도

전북 군산시, 남원시, 순창군 등 지자체들이 설 연휴기간 박물관이나 공원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설 연휴기간 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박물관을 무료 개방하고 '한마당 설날 민속놀이' 행사도 개최한다.

설날인 10일 오후 투호놀이 등 7가지 민속놀이와 새해 근대나무에 소원적기 및 근대한복 체험, 입춘첩 및 가훈 써주기 등의 다양한 체험행사가 열린다.

또 연휴기간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쌍천 이영춘의 삶' 기획전과 '100년을 함께 살아온 친구 화교의 삶과 문화' 특별전을 준비했다.

남원시 역시 설을 맞아 남원의 대표 관광자원인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를 무료로 개방한다.

춘향전의 무대로 널리 알려진 광한루원은 보물 281호인 광한루와 춘향의 얼이 담겨있는 춘향사당, 견우직녀의 애틋한 사랑이 서려있는 오작교, 월매집 등 조선시대 모습을 간직한 유일한 관아정원이다. 현재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33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또 춘향테마파크는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이야기를 테마로 조성한 곳이다. 광한루원 주차장은 설날 당일인 10일에만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순창군도 설 명절을 맞아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연휴기간 강천산군립공원을 무료 개방한다.

/군산=박금석기자 · 전북취재본부장

순천 정원박람회 지원 결의문 채택 김재무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16개 광역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난 4일 전북도의회에서 모임을 갖고 '2013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북대 남원옻칠 사업단 특별 판매전

전북대 남원옻칠 사업단(단장 오승원 교수)이 1일부터 5일까지 전주 롯데백화점(지하 1층)에서 남원옻칠 제품 특별판매 행사를 가졌다.

이번 특별 상품전에서는 남원을 대표하는 옻칠제기를 비롯하여 옻칠상, 옻칠 컵, 옻칠식기세트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해 인기를 끌었다.

사업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상품전에 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백화점 담당자와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오승원 단장은 "상설전시 판매장 구축과 옻칠 제품 알리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남원옻칠제품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판로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전주시 보건소, 모기 유충·방제 활동

전주시보건소는 5일 "이달부터 겨울철 모기 유충과 성충을 방제하는 동절기 모기 방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제 활동은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복합건물 지하 공간, 정화조, 하수구 등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 월동하는 모기 성충과 유충 방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월동 모기 1마리를 잡는 것은 여름철 모기 500마리를 잡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시보건소에서는 다음달까지 친환경적인 방역약품을 사용, 정화조에 유충구제제를 투여하고 건물지하 공간 및 하수구 등에는 가열 연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남원향교 유교경전 수업 잔잔한 감동

조수익씨 8년째 후학 지도…학생도 늘어

남원시 향교동에 자리잡은 남원향교 사마제(司馬齊) 명륜학원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유교경전을 공부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석천 조수익(74) 교수를 스승으로 해 한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명륜학원이 8년째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학생은 50대 중반부터 초고령 84세까지 퇴직 공무원과 교장, 주부 등으로 다양하다. 등록학생 29명 중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은 평균 20명으로 높은 출석률을 보이고 있다.

5~6년 이상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며, 한 번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은 한학에 매료돼 졸업하지 않으려 한다고 한다. 그래서 명륜학원에는 입학은 있어도 졸업은 없다. 수지면 산정리가 고향인 조 교수는 2004년 낙향해 후학을 지도하기로 마음먹은 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1시간 30분씩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조 교수는 "꿈을 가지면 언젠가는 이뤄진다"며 "어디에 살고 있던지 항상 고향을 잊지 말고 남원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젊은이들에게 조언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교통약자 편의시설 턱없이 부족

장애인·65세 이상 노인 등 42만명 거주 저상버스 27대 불과

11개 시·군은 아예 없어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전북지역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지체 · 청각 · 시각 등 등록 장애인은 13만3000명, 65세 이상 노인도 29만여명으로 각각 전체 인구의 7.1%와 15.4%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교통 약자가 적지 않음에도 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등 도내 교통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로 노약자나 장애인이 쉽게 탈 수 있게 하려고 만든 저상버스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대에 불과하다.

그나마 전주 22대를 비롯해 익산 3대, 군산 2대 등 3개 시에만 몰려 있다. 나머지 11개 시·군에는 단 1대도 없다.

긴급 상황이 발생한 장애인이나 이들의 외출을 돕기 위한 장애인 콜택시도 모두 81대에 불과하다. 이 역시 절반 가량인 42대가 전주에 집중됐고 군지역은 1~2대뿐이다.

이처럼 저상버스나 장애인 콜택시가 적은 것은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이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서 정한 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 법에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는 80대 이상 ▲인구 30만명 이상~100만명 미만인 시는 50대 이상 ▲인구 10만명 이상~30만명 미만인 시는 20대 이상의 장애인 콜택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향 신호기 역시 8개 시 · 군에 505개 설치된 것이 고작이어서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전북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이동권은 출퇴근하고, 학교에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는 등 장애인들이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이 되게 하는 기초적인 권리"라며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순창군,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순창군이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 건설, 운수업인 10인 미만) 소상공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 및 거주 사실이 있고,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 운영해온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군은 먼저 2억9600만원을 투자해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소상공인 업소 화장실 22개소와 음식점 주방 6개소를 정비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8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원시, 가축재해보험 사업비 3억여원 확보

남원시는 5일 "자연재해와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 시 피해액의 80~100%까지 지원하는 가축재해보험 관련 사업비 3억68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가축을 사육하고 있고 축산업 등록을 한 농가와 축산업 등록을 할 수 없는 기타가축 농가와 축사시설에 대해 농가당 보험비용 산출액 400만원 이내에서 75%, 소 30두, 돼지 500두 이하 소규모 농가에는 85%의 보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금액과 보험요율은 가입자 자율로 결정하고, 가입기간은 1년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